

청.장년 성경공부

고린도전 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학습 공과>

글쓴이 : Jeff Raines (제프 레인스)  
Wesley Shotwell (웨슬리 샷웰)  
Gary Long (게리 롱)  
Charles Glidewell (찰스 길드웰)  
Tom Howe (툼 하위)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판권소유 © : 2012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 4판, 2010년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Management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 한국어 집필위원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1과 ~ 11과) 번역  
새누리 교회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12과 ~ 13과) 번역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 (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2년 2월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온라인 성경주석.** 좀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성경주석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짐 데니슨 박사가(The Center for Informed Faith 회장, 텍사스주총회 신학자) 저술 했습니다..

1-866-249-1799 로 전화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e-mail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전자포맷(PDF) 파일만 가증합니다. 개인용으로는 6불이고, 5명이 그룹으로 사면 25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무료 배송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1-866-249-1799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 더 자세한 인도자 지침서를 원하시면 1-866-249-1799 로 전화하셔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주문은 5불, 다섯 명이 그룹으로 사면 20불입니다.

[www.baptistwaypress.org](http://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 성경공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습 공과 저자들

**Dianne Swaim** : 1과에서 4과의 저자이며, North Little Rock, Arkansas 에서 남편 고든과 아들 데이빗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Second Baptist Church in Little Rock 의 멤버이다. 그녀는 Arkansas Hospice 의 Spiritual Care Manager로서 섬기고 있다. 그녀는 또한 예비군 부대의 군목으로서 섬기면서 예비군들에 대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녀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를 졸업했다. 그녀와 남편 고든은 함께 3명의 자녀들과 9명의 손자들이 있다.

**Don Raney** : 5과에서 8과의 저자이다. 레이니 박사는 텍사스 피츠버그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목사이다. 그는 University of Alabama 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Robert Prince** : 9과에서 11과까지의 저자이다. Waynesville, North Carolina 의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이다. 조지아 출신인 프린스 박사는 텍사스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도 목사로 시무했었다. 그는 또한 싸우쓰웨스턴 신학교, 뉴올리언스 신학교, 그리고 웨이랜드 침례대학교에서 임시 교수로 일했었다. 그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싸우쓰웨스턴 신학교에서 M.Div. 와 Ph.D. 학위를 받았다.

**Aubrey Knox** : 12과와 13과를 썼다. Lufkin, Texas 제일침례교회에서 교육 및 행정 목사이다. 휴스턴침례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싸우쓰웨스턴 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그는 텍사스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봉사했다. 아내 제니스, 그리고 오스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두 명의 자녀 Kevin Knox 와 Julie Johnson 이 있다. 오브레이는 골프를 즐기고 텍사스 고등학교 풋볼 경기 주심이다.

**Vivian Conrad** : 학습공과 14-15과와 각 과목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를 썼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13년 동안 여러 해외 선교지에서, 그리고 나머지 11년 동안은 필리핀의 어린이 선교 국제 학교인 Faith Academy 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녀는 Mineral Wells, Texas 의 주일학교 교사이자 제자훈련 지도자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생용 공과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학생용 공과의 저자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개요 .....8

고린도전서: 보고와 질문 .....10

	학습 일자	
1과	_____	하나 되기 .....12 (고린도전서 1:1-17; 3:1-4)
2과	_____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라 .....18 (고린도전서 5:1-13)
3과	_____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24 (고린도전서 7:1-17, 25-35)
4과	_____	삶의 회색지대에서는 지혜롭게 살아라.....30 (고전 8:1-13; 10:23-33)
5과	_____	올바른 성령의 은사 사용 .....36 (고린도전서 12:1-14; 12:27-13:3)
6과	_____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라.....42 (고전 15:3-20, 35-44, 50-57)

고린도후서: 관계를 새롭게

7과 \_\_\_\_\_ 당신의 어려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51  
(고린도후서 1:1-11)

8과 \_\_\_\_\_ 얽힌 관계를 풀어라.....56  
(고린도후서 2장 1:12-2:13)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9과	_____	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62 (고린도후서 2장 2:17-3:6; 4:1-6)
10과	_____	영원한 안목으로 보는 삶.....68 (고린도후서 4: 7-5:10)
11과	_____	사역의 동기.....74 (고린도후서 5: 11-6:2)
12과	_____	주는 것에 부요한 자가 되라.....80 (고린도후서 8:1-15; 9:7-8;11-15 )
13과	_____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86 (고린도후서 12:1-10)

## 개요

###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했다. 사실 고린도전.후서 읽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최소한 문제가 많았다. 그들을 분열시키고, 그들 가운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증거들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고린도 서신들이 쓰이기 몇 년 전에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며 1세기의 방향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고린도인들이 이전에 들었던 신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들어왔다. 사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수 십년 동안 거하셨다.

이 예수는 생명의 길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 - 가장 고통스런 죄인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에게 배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전도인들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 같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다. 예수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길을 주셨다. 예수는 그들을 불러서 그를 따르며 증거하고 사역을 하게 했다. 더군다나 이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믿을 수 없지만 실재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그 작은 그룹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의 의미와 소망에 의해 하나로 묶여졌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떠났다. 그 우리들 안에 불확실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때로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대답하기도 했고 당시의 세속 문화에서 배웠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호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도전하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습들로 돌아갔다. 그들은 고린도 거리에서 알고 있었던 삶의 양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다. 최소한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매우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언쟁과, 불화와, 분열, 그리고 논쟁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특정지웠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분파가 나뉘었다 - 바울, 아볼로, 베드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권위있는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록 만장일치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지만 그렇게 했다. 아마 바울에게 그 편지를 가지고왔던 사람들은 - "글로에의 사람들" - 또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전달했을 것이다 (고전 1:11).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실 그는 몇 번에 걸쳐서 썼다. 그 교회의 문제들은 매우 오래되었고 심각한 것이어서 편지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이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이 이번 학습의 기초를 이룬다.

## 고린도전서: 보고와 질문

본 고린도전서 연구는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과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 바울에게 온 보고들을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분파들 (고전 1:10), 성적 타락 (고전 5:1),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 (15:12) 문제가 바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이슈들 -- 결혼 (7:1, 25),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 (8:1), 영적 은사들의 본질과 목적 (12:1), 그리고 "성도를 위한 연보" (16:1) -- 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었다.<sup>1)</sup>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이 요소들이 바울이 이 서신에서 쓰고자 했던 주요 이슈들의 표식을 제공해준다. "성도를 위한 연보" (16:1)에 대한 바울의 간략한 언급 때문에 이 질문은 고린도후서 공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고린도후서 8--9장에서 광범위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행 18:1-8), 아마도 AD 49년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러고 나서 18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후 그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떠났다. 바울이 떠났을 때, 그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는 고린도전서를 본격적으로 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알고있는 서신은 실제로 최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고전 5:9절을 보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처음 보낸 편지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는 대략 AD 5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모두 기쁘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 자체를 의심했고 도전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반증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 자신의 믿음들과 행습들을 어떻게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적시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

1) A.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V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31), 124, 137, 167, 200. The Corinthians may have inquired also about Apollos (1 Corinthians 16:12).

## 고린도 전서 연구를 위한 자료들<sup>2)</sup>

Raymond Bryan Brown. "1 Corinthians."

BroadmanBibleCommentary.Volume10.Nashville,Tennessee:BroadmanPress,1970.

F.F. Bruce. 1and2Corinthians.NewCenturyBible.London:Oliphants,1971.

Kenneth L. Chafin.

1,2Corinthians.TheCommunicator'sCommentary.Waco,Texas:WordBooks,Publisher,1985.

David E. Garland.

1Corinthians.BakerExegeticalCommentaryontheNewTestament.GrandRapids,Michigan:BakerAcademic,2003.

Fred D. Howard.

1Corinthians:GuidelinesforGod'sPeople.Nashville,Tennessee:ConventionPress,1983.

Craig S. Keener.

1and2Corinthians.NewCambridgeBibleCommentary.New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5.

J.W. MacGorman. Romans,1Corinthians.TheLayman'sBibleBookCommentary.Volume20.Nashville:Broadman Press, 1980.

A.T. Robertson.

WordPicturesintheNewTestament.VolumeIV.Nashville,Tennessee:BroadmanPress,1931.

---

2) 연구자료 목록에 있는 내용을 모두 BAPTISTWAY PRESS의 신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b>[제 1 과]</b>	<b>하나 되기</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1:1-17; 3:1-4</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전서 1:1-4:19</p>	<p><b>학습주제</b> 그리스도인이 불화, 분열, 질투,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리가 먼 일이며, 영적 갓난아이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p> <p><b>탐구질문</b> 어떻게 하면 분열, 불화, 질투, 싸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분열, 불화, 질투, 싸움을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했던 첫번째 문제는 분열의 영이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분열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촉구했다.

물리학은 우주가 기본적인 네 가지의 힘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강성 핵력, 전자력, 약성 핵력, 그리고 중력. 이것이 인류에 들어올 때 나는 또 한 가지의 힘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우리의 죄성 깊숙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 힘은 결혼, 가족, 클럽, 가족, 이웃, 팀, 정부, 그리고 직장 속에서 사정없이 발휘한다. 만일 중력이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긴다면, 이 힘은 우리를 분리시킨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분리시키는 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힘의 작용은 예수님의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약속에 대한 패러디이다. 그 분리시키는 힘은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이 힘이 그들을 분리시킬 것이라는 약속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분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다루실 때 그 반응은 관계의 분열이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강조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함).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그는 이 힘을 보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0-21, 강조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함).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신 장면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교회 역사는 분쟁, 질투, 분열, 그리고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교파들은 정기적으로 깨어진다 (침례교를 포함해서). 그러한 불화가 낳는 결과물이 있다. 바울은 교회들 안에 있는 분열의 파괴력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그의 서신서에서 애를 쓴 장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지나간 기독교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들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1:1-9)

우리는 바울 서신의 도입부 구절을 빨리 읽어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른다. 달콤한 인사와 감사의 말을 빨리 지나가서 본론의 중심을 읽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도입부는 바울에 대해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그 부피를 말해준다.

고린도는 특별한 지역이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파괴되었었지만, 약 1세기가 지난 후 율리우스 시이저의 지도하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다시 세워졌다. 시이저는 로마의 자유민들 -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들, 이들은 주로 교육을 받아서 지식과 야망이 있었다 - 로 그 지역을 채웠다. 그리스 반도에 위치한 그 지역은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리스의 북단과 남단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양쪽 끝에 있는 항구들은 로마와

로마제국의 동부를 연결해주는 주요 파이프 역할을 해주었다.

고린도는 철학과 종교의 도가니였고, 부와 지위가 상금으로 주어지는 장소였다. 로마 식민지로서 부요하고 각광을 받았던 고린도는 주변의 다른 그리스 가난한 지역들과 크게 비교되었다. 고린도는 자랑거리가 되는 도시였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조차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고린도와 그 이교적 가치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이 그의 다른 많은 서신서들에서는 그 도시에 있는 "성도"에게 교훈을 주면서 이 서신서의 가장 첫 부분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단수)에 말하고 있다 (고전 1:2). 고린도는 몇 개의 가정 교회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더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곤 했다.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분명 분열이나 갈등의 온상을 제공하는 구실을 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가정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경제적 형편에 따른 교회들의 내부분열이 있었다는 증거를 간파할 수 있다 (고전 11:17-22). "교회"라는 단수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전 1:2)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바울은 그들의 관심을 고린도의 지역적 경계를 너머서게 했다. 그들은 그리스 반도에 있는 교회들과 그때까지 알려진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하나이었다.

몇 개의 구절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지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댓가로 얻은 것도 산 것도 아니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고 (1:2), 은혜를 받은 것이었고 (1:4), "그 안에서... 풍족하게" (1:5) 되었다. 또한 그들은 "끝까지" (1:8) 견고하게 될 것이며, "교제" (1:9)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의 문화가 지위와, 업적과, 사치스러운 물건들과, 훌륭한 말솜씨와,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 가치를 두었던 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지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형적으로 감사의 구절들이 포함된다.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는 서신 전체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사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말을,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의 "영적인 언변" 행습을 (고전 12--14장),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사랑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오용되는 그러한 은사들이 저주가 될 수 있고 9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장벽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장점에 대해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 하나 될 것을 촉구함 (1:10-17)

바울은 10절에서 1--4장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언급했다.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 (1:1)으로부터 그런 분열에 대한 소식을 직접 접했다. 그들은 명확하게

지도자들을 따라서 갈라져 있었고 바울은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언급한 지도자들 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열하게 만든 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서신서가 각 교회들 안에서 공개적으로 읽힐 것을 감안하여 지역 지도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만을 언급했다.

바울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강조하며 이런 생각을 받아쳤다. 바울은 명확히 "바울"파가 된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지 않다. 14-17절의 침례에 대한 토론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은 것을 연관지어 자신을 어떤 우상처럼 떠받드는 유혹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침례를 주는 의식에 있어서 침례 집행자의 힘은 그 의식이 가리키는 오직 한 분과 즉,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열문제로 씨름을 할 때,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엄청난 대중매체의 성장으로 우리는 세계의 설교자들, 교사들, 그리고 사상가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랍고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이비적 행태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혼동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 막간 (1:18—2:16)

언뜻 보기에 이 부분은 바울이 마치 토끼를 쫓는 듯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어리석음, 그 자신의 신분, 그리고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상을 열심히 진술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의 불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사상들을 정교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게 거절했었는지 묘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향하고 있었다. 고린도인들이 그와 함께 그 불신자들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1:26절에서 그들 자신의 배경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들이 모욕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바울은 2장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인간으로서, 신분으로서, 혹은 화술로서 바울 안에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는 단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본 장은 성령의 필요성으로 맺는다. 다시 한 번 말하건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나 달성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다. 바울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랑하거나 혹은 어떤 사도들이나, 선생들이나, 혹은 가정 교회 지도자들 뒤에 줄을 설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 성숙해져라! (3:1-4)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인들의 분열과 불화의 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바울 서신의 이 부분이 그 회중 가운데 처음으로 읽혀졌을 때의 그 방 안의 열음같은 침묵을 상상해보라! 고린도전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교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이르렀고 (4:6-8절을 보라) 특별한 은사들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12-14장). 아무리 그들의 지식과 언변에 대한 은사가 컸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는 그들의 교제의 영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서신서의 후반부에서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된다 (11:17-34).

그 결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성장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갓난 아이들이 먹는 우유였다. 이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급스런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비밀스런 교훈과 고롭스런 가르침은 이방 종교에서 성행하던 관습이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늘 일관성 있었다 -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파벌로 나뉘어지는 그들의 분열성이 그들을 어린 아이로 분류하게 만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질투와 분열에 면역된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에 다가오는 그 영향들을 거부할 수 있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몇 단계들을 지적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기초적인 사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인간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에 근거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와 사역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결코 불일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때, 고린도전서 1:10절에 있는 바울의 메시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

넷째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 언급한 표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이 것을 서신서 후반부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13:1).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한 자로서의 표준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 질문

1. 당신이 보아온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하나 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3.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분열의 영을 허용하고 있는가?
4. 당신의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 됨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됨을 육성할 수 있을까?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5:1-13</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전서 5:1-13</p>	<p><b>학습주제</b> 교회는 세상 저편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훈련받는 공동체이다.</p> <p><b>탐구질문</b> 교회는 어떻게 바리새인적 위선이 없이 정결하게 훈련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교회 안의 정결한 삶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요약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파악한다. 아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생각한다.</p>

## 들어가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무시하고 있었다. 고린도 안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그 사람을 그들의 교제권 안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 안에서 대부분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의 치리는 분명히 성경의 보장을 받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실재한 것이다. 교회 치리의 어떤 형태는 불행하게도 필요한 반면, 그것을 은혜롭게, 적당하게, 기밀을 지켜주며, 구속적인 영으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는 영의 위험들에 대해서 진술했다. 고린도 교회가 가정 교회들이 모인 것을 감안할 때,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 의식과 파벌 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신서 후반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화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교회의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를 무시했다 (고전 11:22).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했다 (고전 4:6, 7, 18). 그들은 수사학, 지위,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사랑이 언변이나 지식 (고전 13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4장의 마지막 말들은 하지만 상당히 위협적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전 4:21).

왜 바울은 그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했을까? 5장과 6장은 그 대답을 제공한다. 하나 됨에 대한 문제에 더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 증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일어난 것을 무마했고 (5:1-13), 교인들 간에 공개적인 법적 소송이 있었고 (6:1-8), 교인들이 창녀촌을 들락거렸다 (6:12-20).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2)라고 이야기 했었다. 5장과 6장의 그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주변에 있는 이교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 근친상간 (5:1-2)

편지 후반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에서 밝혀진 문제들에 대응했다 (7:1을 보라). 이 문제는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는 여행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1).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 남자의 혈연적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아마도 그는 그의 계모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바울은 그런 죄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5:1) 고 놀랄만한 언급을 했다.

매춘, 동성연애, 혼외정사, 그리고 내연 관계는 1세기 로마 세계에 만연된 행습이었다.<sup>3)</sup> 고린도 지역은 특히 이런 면에서 극심했다. 바울이 편지를 쓰기 수 백년 전에, 코린디아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면, 간통을 한다."<sup>4)</sup> 같은 시기에 라이벌 도시였던

3) Everett Ferguson,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2nd e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87), 69.

아덴에서는 고린도에는 1000명의 창녀 사제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sup>5)</sup>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보다도 더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성적 윤리에 관하여서는 로마 세계와 유대인의 세계는 거의 비슷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두 문화 모두 근친상간을 저주했고 이는 계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본 장에서 교회에 관해, 그리고 죄인에 관해서보다는 순결의 필요성<sup>6)</sup>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발언했다. 이 남자를 (여자는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치리하는 대신에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다 (5:2).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들이 이 남자의 가증스러운 악행에 대해 자랑하는 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대한 우월감과 영적 신비에 흥청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지식이 전통적인 성윤리를 넘어 설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듯하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4장에서 언급했던 그들의 일반적인 영적 우월의식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바울은 이러한 종류의 죄가 있는 교회가 감히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바울의 처방은 이 남자를 추방하는 것이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를 추방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문제들을 겨냥해볼 때 이 남자는 아마도 고린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 교인이었을 것이다 -- 아마도 어쩌면 가정 교회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로마 문화에서 그러한 후원자를 거부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고 강력한 새로운 원수를 생성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sup>6)</sup>

## 독: 조심히 다루라 (5:3-8)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바울은 자신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물로 간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아래서 그들은 이 남자를 교회로부터 추방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놀라운 권위로 촉구하고 있다, 비록 그가 이 일을 그 교회의 업무로 간주하고 있지만 말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5절은 수 많은 질문을 일으킨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것인가? 사탄은

4)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87), 2.

5) Wendell Willis, "Corinth," Eerdmans' Dictionary of the Bible, ed. David Noel Freedma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2000).

6) [i]David Garland,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Baker Academic: Grand Rapids, Michigan, 2003), 163.

그 남자를, 혹은 그 남자에게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망 선고인가? 그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을 바울은 그 남자를 이 세상과 그 통치자인 사탄의 영역에 넘겨주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매우 다양해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 추방될 때, 그들은 다음 주에 근처의 다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고린도에서는 가정 교회들이 함께 동의하여 추방하면 나갈 교회가 없는 것이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그 남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 남자의 추방과 사탄 아래서 겪는 고통을 그 남자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버린 "육신적인" 요소를 파괴하는 잠재성으로 간주했다 (5:5). 바울의 소망은 그 남자의 궁극적인 구원이었다.

6-8절은 1세기에 통용되었던 세 가지 비유들과 구약 역사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의 정결을 묘사한다. 6절의 첫 비유는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쁜 누룩이 부식시키는 영향을 사용한다. 효모(yeast)와 달리 누룩(leaven)은 효모로 만들었던 빵에서 남겨진 빵의 일부이며 그 다음 밀가루 반죽에 사용된다. 만일 이 누룩에서 박테리아가 번식되면 이 누룩으로 만든 빵 전체는 상하게 되며 이 것을 남겨서 만든 그 다음 빵들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갈수록 독성이 강해진다. 이 남자의 죄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번째 비유 (5:7)는 교회로 옮겨간다. 그 오래되고 독성이 있는 누룩은 제거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덩어리가 될 것이다. 바울은 신속하게 이 비유의 필요조건을 7절 속에 가운데 집어 넣었다. 은혜의 복음과 함께 바울은 종종 교회들과 신도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불렀다. 우리의 행위나 애씀이 우리의 지위를 성도의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신속하게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집어넣는다.

마지막 이미지는 (5:7b-8) 고린도 교회를 영속적인 유월절로서 묘사한다. 정결은 유대 유월절 축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집은 집 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사람들은 정결하게 했다. 그러한 정결의 이미지는 뻘뻘하고 도덕적으로 결핍된 고린도 교회의 관습들과 상반됐다.

## 적합한 심판들 (5:9-13)

5장의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전의 편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허용하는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편지를 썼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 죄인들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그의 충고를 오해했었다. 바울은 그의 교회들이 타락한 세상과 분리해서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도시들이나 나라들에 있는 불신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겨냥하여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도시들 한 가운데서 살고, 일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데 한 숨도 낭비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만일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했을 때, 그는 1세기의 연합된 식탁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냥 식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로서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는 그러한 악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바울은 이것을 단지 성적인 타락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술 취하는 것과 도둑질도 포함했다.

본 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발언은 신명기 13:5절에서 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결과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교회 자체와 세상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남자의 추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 적용 및 실천

불완전한 "성도"의 공동체들인 우리의 교회들이 만일 모든 죄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면 정말로 그 숫자가 매우 작아질 것이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의도가 아니다. 동시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뻥한 죄악을 용납하게 될 때 -- 성적 타락, 탐욕, 혹은 폭력 --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15-18절에서 교회 안의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모델로 말씀해주셨다. 교회로부터 추방하는 일은 마지막 단계이다.

회복은 결코 쉽지 않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중하게 간직해온 지도자 위치와 가르치는 역할등을 포기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희생자들은 어떤 형태의 회복에도 깊이 거부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려운만큼, 우리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고 보여주신 구별된 삶을 살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질문

1. 고린도전서 5:12-13절의 심판하는 사상이 예수님의 명령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1)는 말씀과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가?
2. 만일 식탁 교제가 바울 시대처럼 생활양식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표시라면 당신의 교회에는 어떤 표시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3. 만일 누가 당신의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면, 교회 안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 그 일은 목사만 처리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스태프? 집사회, 혹은 전체 교인?
4.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잘난 것처럼 자랑하는가?

## [참고]

### 언약 백성

고린도전서 5:1절에서, 바울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어는 에쓰네신 (ethnesin)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Septuagint)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 회중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었던 것과 똑같이.<sup>7)</sup> 5:13절의 인용은 이 점을 강조해준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부분에서 개인의 죄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이 아간이 몇 가지 노획물을 숨겨둔 죄악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 제거될 때까지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전 1:2) 답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자세가 중요하다.

---

7) Richard Haye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7), 81.

<p><b>[제 3 과]</b></p>	<p><b>결혼을 했던 독신으로 살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b></p>
<p><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7:1-17, 25-35</p> <p><b>배경</b> 고린도전서 7장</p>	<p><b>학습주제</b> 결혼을 했던 안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p> <p><b>탐구질문</b> 결혼을 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 모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결혼해서, 그리고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요약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묘사한다.</p>

## 들어가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결혼, 과부, 독신, 그리고 정혼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원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다른 결혼에 관련된 상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친구나 배우자가 감정에 몰입되어 전화하는 것을 옆에 앉아서 열심히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쪽만의 대화를 들으며 앉아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오, 와우, 모두 괜찮은거야?... 그 사람들이 그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데?... 그녀는 아픈거야?... 어떤 방?... 그리고 아기는?... 의사는 아직 안 왔어?... 최대한 거기로 빨리 달려갈게! 그 대화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인가? 전화로 대화하고 있던 상대방은 친구인가, 이웃인가, 혹은 당신의 아이인가? 우리는 대화의 한 쪽만을 들을 때 극단적으로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치 한 쪽의 전화 대화만 듣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물론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다르다.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에 자신과 자신의 신학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 경우에 바울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만을 진술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풍부한 관계를 나누고 있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과 함께 18개월을 지냈고, 이전에 편지를 쓴 적이 있고, 그들로부터 답장도 받았고,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적인 소식들을 전달 받았다. 바울은 그 도시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그 교회를 알고 있었고, 그 지도자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린도의 거리들, 그 냄새들, 사람들의 갈등들, 그리고 유혹들을 알고 있었다.

고린도서 첫 6개의 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소식들에 대해 반응을 해왔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의 복음 전파에 악 영향을 미쳤다. 7장에서 바울은 한 서신에서 그들이 일으켰었던 문제들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는 구절 속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은 결혼에 관련된 문제 (7:1), 처녀들의 정혼에 관련된 문제 (7:25), "우상의 제물" (8:1),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 (16:1), 그리고 아볼로의 전도 여행 계획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16:12)이다.

## 꺾는 것과 유지하는 것 (7:1-9)

고린도전서 1장의 전화 대화 중 한 쪽 말만 듣는 본질은 7장의 도입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준다. 그리스어 본문은 아무런 마침표도 없다. 어떤 주석가들은 1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여자와 성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낮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조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7:1b) 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들의 해석에 있어서 결혼은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차선의 방법이다.

나는 그것은 본 장과 바울의 결혼에 대한 다른 곳에서의 발언을 (예를 들어 에베소서 5:22-23) 푸는 올바른 해석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언급한 것을 인용한 듯 하다. 어떤 번역자들은 이 부분에 인용 표시를 해서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서신으로부터 바울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책의 첫 장들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지도자들이 성적인 금욕과 고행이 고등 영성으로 가는 길로서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지 육체의 행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결혼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부류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비 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이다.

1절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바울은 이 두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독신으로 있는 것은 좋다. 결혼한 사람들의 성관계는 좋다. 그러나 음행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2-5절에서 결혼한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문제를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본문 바로 앞 고린도전서 6:15-20에서 묘사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매춘을 구걸하는 양상을 일으키는 데 한 몫을 했던 것 같다. 바울은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부끼리 서로 동의한 가운데 성관계를 절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한 육체적인 금욕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비윤리적인 선을 넘도록 하는 것이다.

4절은 평범하면서도 급진적인 표현이다. 남자가 여자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였다. 바울이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새롭고 예기치 못했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로 묘사한다. 그들은 바울이 남·녀 평등에 대한 21세기의 감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바울은 21세기 로마제국의 문화 속에서 매우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상은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며 동시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함에는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진술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이 공간에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22-33)

##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7:10-17)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이혼에 대한 주제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묘사된 고린도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혼은 한 쪽 배우자가 독신 사상을 따르게 될 때 일어난 일이었고 심지어 한 쪽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혼 계약이 해지되는 일도 일어났다. 그들의 문화에서 이혼은 매우 쉬운 것이었다. 헤어지는 목적으로 한 쪽 배우자가 떠나는 것이 요구되는 모든 것이었다. 어떤 법적인 혹은 서류적인 과정이 없었다.<sup>8)</sup>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 10:1-12) 이혼에 대한 반대 진술을 시작했다. 12절에서 바울은 주님께 의해 언급되지 않은 주제로 옮겨 간다 - 오직 한 쪽 배우자만이 그리스도인인 결혼관계. 이 시기의 다른 글들은 부인들이 남편들의 종교적인 믿음들과 행습을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전해준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신도가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4-15절에서 바울은 거룩과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언어를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 배우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 것은 영혼을 오염시키거나 혹은 믿는 배우자를 더럽히게 한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바울은 14-15절에서 이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한 성경 주석가가 말했듯이, "거룩은 ... 전염성이 있다."<sup>9)</sup> 바울은 이러한 말로 어떤 사람이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간접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보아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17절은 여러 가지로, 이 주제들에 대한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의 요약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독신이나 결혼이 아니다. 독신은 은사이며 어느 정도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하느냐, 윤리적으로 자유로우며 하나님께 신실한가이다.

17-24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한 두 개의 예를 더 들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할례는 어떤 영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일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노예들에게 적용되었다. 바울은 만일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잡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8)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3), 265.

9)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87), 284.

## 오직 한 마음으로 헌신 (7:25-35)

25절에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 옮겨간다. 바울의 조언은 간단히 말해서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다.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좋다. 또한 독신으로 남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리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위해 실질적인 유익들을 가져다 준다.

28절에서 바울의 신학은 이렇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주곡인 부활과 최후의 승리인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절과 핍박을 당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유를 다루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일에 대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필터를 통해 보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결혼도 잠깐이다 (눅 20:34-37).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나타나야 하고 가족과 여러 관계들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32-35절에서 독신의 실질적인 사역적 장점으로 돌아간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만일 그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매우 어려웠을 일이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자기처럼 살라고 조언한다.

## 적용 및 실천

본 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연하고 있었던 매우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결혼, 독신, 과부, 이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주제들을 엮어 조언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의 행습과 가르침들을 바로 잡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 사이를 구분했다.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비윤리적인 것들" (고전 7:2;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 (porneia))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결혼 계약을 존중하고 이혼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신이든, 결혼을 하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소망을 두며 예수께서 부르신 일에, “하늘의 보화” (마 6:19-20)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목표인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제시했을 것이다 (고전 7:35).

## 질문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1. 당신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7:35)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2. 만일 당신이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돕게 할 수 있는가?
3.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타락으로 젖어있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가?
5. 독신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참고]

### 이혼

우리 시대에 이혼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주제는 별로 없다. 신약성경은 이혼을 단지 몇 번 정도만 이야기 한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5:31-32 그리고 그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6:18; 마태복음 19:1-12 그리고 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2-13;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이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혼을 반대하셨다. 산상 설교에 나타나는 그의 다른 가르침들과 연계해서,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본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범을 더했다.

오늘날 우리의 경향은 이혼을 위해서 예외들의 목록을 원한다. 성경은 그러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서약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상황이 어떻든 이혼은 상처들을 남긴다. 교회 가족들은 강력한 결혼관계를 육성해야 하고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p><b>[제 4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삶의 회색 지대에서는 지혜롭게 씨름하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전 8:1-13; 10:23-33</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전 8:1-11:1</p>	<p><b>학습주제</b> 비록 어떤 행습이 그리스도인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그런 행습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p> <p><b>탐구질문</b>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p> <p><b>학습목표</b>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이 분명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대응하는 원리들을 깨닫는다.</p>

## 들어가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자유는 복음의 심장부에 있다. 예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의식들과 종교적인 관례들에 대한 노예와 같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의한 용납은 우리가 돼지 고기를 먹고 안먹고, 혹은 안식일에 얼마나 걷는지, 혹은 종교적인 순례여행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발견했었다. 아마도.. 최소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들은 손을 씻는 정결 의식과 법,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들은 혼동했거나 혹은 많은 것에 대해 무지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유에 대한 질문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수준의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자유의 한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통찰력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로 인해 불편했다. 그들은 전에 살던 방식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 가운데는 한 때 유대교의 의식과 관습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교도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교도 신전에서 살던 방식의 죄를 기억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최상의 동물들을 이교도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교도 신전이 있었다. 그 고기의 작은 부분은 이교도 제단에서 태워졌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팔리기도 했다.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이교도 신전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고린도 있던 좀 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신전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먹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기가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바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행습은 좀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고기를 먹곤 했었던 새신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왜 우상숭배와 관련된

고기를 먹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잘못된 것인가, 옳은가?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 바울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비록 그가 고전 10:23절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슬로건일 듯한 말을 인용한 듯 하지만 (고전 6:12절도 보라), 그는 단지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옳음은 지식보다는 사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고전 8:1).

고린도에 있는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런 고기를 먹을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동물을 희생제물을 받을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신자가 고기를 먹는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김 선생은 나의 첫 목회지에서 알게된 사람이다. 김 선생은 60년 전 20살에 구원 받은 분이다. 그는 나에게 그의 구원 간증을 해주었고 그러고 나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바이올린을 연주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 합창단에 바이올린 주자까지 있었다! 나는 왜 그것이 김 선생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나는 김 선생이 술집과 클럽 등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었고,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세속적인 삶과 연계하여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다시 그것을 연주하면, 그는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연계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그 60년 안에 그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유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김 선생이 그렇게 해왔던 것은 그의 이전의 삶과 연계하는 그의 양심때문이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새신자들은 이교도를 숭배하던 생활로부터 거듭난 것이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이전의 생활에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이교도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그러한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했고 이제 그들의 양심이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수용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고기를 먹는 자유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시험에 들게하고 다시 이교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것이라고 진술한다. 게다가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고 그것을 위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뻔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은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잘못할 수도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1절에서 진술한 것처럼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 대면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들이 있다, 그리고 논쟁들이 어떤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아닌 단지 어떤 사람의 편견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자유로 인해 단지 성가시고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행동을 찾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고기를 먹든 안먹든, 혹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 안 할수 있는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랑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 아는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일이다.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안 할수 있는 자유이다. 사랑은 자유를 통치한다.

초기 세대의 한 목사였던 아이언사이드 목사 (H.A. Ironside, 1876-1951)가 이슬람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이 교회의 야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샌드위치를 주었다고 한다. 그 남자는 물었다, "무슨 샌드위치인가요?" 그 대답은 남겨진 샌드위치는 햄과 돼지고기 로스트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배경을 들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샌드위치를 주면서 말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당신은 모든 음식에 대한 규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돼지고기든, 햄이든,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 거듭난 사람은 대답했다, "예, 저는 자유롭게 돼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것을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데, 저에게 물을 첫번째 질문은 '그 이교도들이 너에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아직도 먹으라고 가르치더냐?' 만일 제가 그에게 '예, 아버지'라고 대답해야 한다면, 저는 집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하던 식으로 '아니오, 아버지. 어떤 돼지 고기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가족의 테두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을 때 염두했던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 10:31-33).

## 적용 및 실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안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도 더 이상 얽매어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욱 고려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결정들은 지식이 아닌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 단순히 당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라.

## 질문

1. 로마서 14:1--15:6절을 읽어라. 이 가르침들은 고린도전서 8장의 가르침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2. 고린도 교회의 고기를 먹는 문제와 비견할 수 있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가?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가?

4. 예수께서는 당시에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시지 않았다. 그의 행동들은 엄격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바울이 썼던 원리들과 예수님의 원리는 상충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해야 할 때가 있는가?

## [참고]

### 오늘날의 이슈들을 돌아보기

바울은 진공상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들은 어떤 정보에 대한 반응 속에서 썼고, 그들이 질문한 것을 대답한 것이었다. 그는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고전 1:11)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음행이 있다는 소식도 그에게 전해졌다 (고전 5:1).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우상에 바쳐진 음식, 영적 은사와 관련된 올바른 예배 (고전 11--14장), 그리고 부활 (고전 15장)과 관련된 의문들을 질문했었다.

바울은 역사 속의 실재한 교회 속에 있었던 실재 이슈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다. 당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생각해보라. 만일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들을 바울에게 하고 싶은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관련된다고 생각하는가?

<p><b>[제 5 과]</b></p>	<p><b>올바른 영적 은사의 사용</b></p>
<p><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12:1-14; 12:27-13:3</p> <p><b>배경</b> 고린도전서 12-13</p>	<p><b>학습주제</b> 도인들은 함께 받은 유산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p> <p><b>탐구질문</b> 우리의 개인주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유하는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 유산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위해 나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파악한다.</p>

## 들어가기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몸 속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은사들을 채워주신다.

성령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교회사 내내 있었다. 그 질문은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오순절부터 시작되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물었다,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행 2:12-13).

성령에 대한 질문들은 그 이후 사람들을 갈라 놓았다. 불행하게도, 침례교 전통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모두 은사주의 운동가가 될까, 그리고 커다란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이 올라갈까 심하게 두려워 한다. 우리는 분명히 흥분 가운데 휩쓸릴 가능성을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열된 교회였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아마도 예배 가운데 과도하게 흥분했던 것 같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조용히 믿음의 깊은 것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으로만 이해했다. 최소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 성령에 대한 지식

고린도인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했었다. 교회의 성도가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 성령들이 다양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했던 것일까?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그런 의제에 대해 나뉘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오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약간의 조명을 해주었다. 먼저, 그는 성령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누구든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똑같은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준비시키신다.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여기에서 열거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은사들만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은사들이 나타난다; 로마서 12:6-8; 에베소서 4:11; 그리고 베드로전서 4:10-11.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열거한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다. 12장 끝 부분에서 그는 이 목록들에 사도, 교사, 그리고 행정을 더했다. 각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활력있는 어떤 것을 성취한다.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어떤 은사들은 오늘날 그 진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데, 특히 방언이 그렇다. 고린도전서의 문맥 속에서 방언은 영적 무아경지의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는 오순절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 초기에 거듭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방언이 중단 된 것으로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은 바울이 비록 공적 예배시 그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 모두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자 여러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영적 은사는 각 몸의 부분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부분이 없을 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사와 다르다고 해서 당신의 교회에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없이 당신의 교회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같지 않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당신을 떼어낼 수 없다.

가끔씩 아내와 나는 음악회를 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는 트라이 앵글을 치는 사람이다. 그는 보통 큰 역할을 맡지 않는다. 다른 악기들이 연주될 때 그는 참을성 있게 앉아 있다가 때가 오면 일어나서 자기가 연주해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연주한다. 그가 맡은 역할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없으면 그 음악은 미완성이 될 것이다.

때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없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글썄, 아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트라이앵글 하나로만 연주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의미있게 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의 몸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없이는 교회의 사역은 미완성이다. 교회 없이는 영적 광야에서 홀로 트라이앵글을 치는 사람과 같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 됨이 획일성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 됨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 됨은 이를 수 없는 어떤 공통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획일성은 모든 사람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큰 과업을 성취할 수 없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됨이지 획일성이 아니다.

## 더 좋은 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들이 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양성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 사랑의 결핍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한다. 바울은 비록 당신이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의 은사는 교회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혹은 바울처럼 지식이 많고, 혹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들로 갈라졌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은사들이 작동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랑은 뭉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사랑은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되게 하는 것을 행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즐거워 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은사의 다양성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을 기린다.

## 적용 및 실천

찰스 플럼은 미해병사관학교 출신이며, 베트남에서 전투기를 조종했다. 75년의 사명을 마친 후, 그의 전투기는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플럼은 전투기가 터지기 전에 탈출했고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공산국가 감옥에서 6년을 수감당했다. 그는 그 엄청난 시련을 겪어냈고 그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플럼과 그의 아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은 찰스 플럼 아닙니까! 당신은 키티 호크 공군수송기를 운전하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았었죠. 당신은 그 제트기와 함께 전사한줄 알았었는데요!"

"도재체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플럼은 대답했다.

"제가 당신의 낙하산을 챙겨드렸었습니다." 그 남자는 악수를 청하며 말하기를 "그게 작동이 잘 되었었군요!"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의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플럼은 그날 밤 그 남자에 대해 생각해내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 사람을 굉장히 자주 보았을텐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나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그와 어떤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투기 조종사였고, 그 사람은 단지 선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선원이 전투함에 있는 긴 나무 의자 위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산을 점검하고 수리했었다. 그 남자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하급 선원은 무시되었고 칭송 받지 못했다. 만일 그가 그의 일응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그가 '내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않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가 그의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다.<sup>10)</sup>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전투기 조종사로, 어떤 사람들은 낙하산을 점검하고 수리라고, 접는 일을 한다. 모두 필요한 것이다.

모든 영적 은사가 다른 것들처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 교사, 혹은 지도일 수 없다. 어떤 은사들은 보이지 않고 칭송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당신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면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 질문

1. 바울이 기록한 은사들을 생각하라. 각각의 은사는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2.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당신에게 주셨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라 (롬 12:6-8; 엡 4:11; 그리고 벰전 4:10-11). 당신의 은사를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3. 다음의 진술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 "사람은 교회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 당신은 동의, 혹은 반대하는가?
4. 성경의 은사 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은사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

10) Speaker's Roundtable, Insights Into Excellence, 3rd ed. Chapter 16 by Charles Plumb (Executive Books, 1993).



## [참고]

### 영적 은사에 대한 진리들

1. 은사의 용도는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3).
2. 하나님은 모든 은사들의 근원이시다 (12:6).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았다 (12:7).
4.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12:7).
5. 각 은사는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2:14-26).
6. 어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은사보다 더 유용하다(12:31; 14:19).
7.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13:1-13).
8. 은사의 올바른 사용은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든다 (1 Cor. 12-13.)

<b>[제 6 과]</b>	<b>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라</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전 15:3-20, 35-44, 50-57</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전 15장</p>	<p><b>학습주제</b>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 자신의 부활을 확증케 한다.</p> <p><b>탐구질문</b> 이 것이 모두 일어날 일인가?</p> <p><b>학습목표</b>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대한 나의 소망을 증언한다.</p>

## 들어가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상기시켜주며 주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소망들이 영원한 몸을 받음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2004년 12월, 엄청난 쓰나미가 스리랑카의 갈레를 강타한 후 한 작은 힌두교의 신전이 부서진 침대와 깨어진 콘크리트 사이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 벽들의 일부와 힌두교의 신들을 조각해서 만든 사람 크기의 동상들이 남아있다. 신전들의 부서진 지붕에 기대어진 싸인 널판 위에 손으로 쓴 글이 있었다; "우리와 같은 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습니까?"<sup>11)</sup>

대부분의 우리는 스리랑카에 덮쳤던 쓰나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안에서조차 죽음에 둘러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 교회 뒤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다. 거기에서 나는 몇 사람의 장례예배도 집도했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어느날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는 우리들도 거기에 묻힌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긴다 (15:3-1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상기시켰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설교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으며, 소망도 없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전도할 때 구전된 복음의 전통 위에서 전했다. 그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여겨지는 그가 다른 신자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인용함으로써 그 전통을 다시 언급했다. 비록 그 인용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만, 3절에서 시작하고 5절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하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삼 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예수께서는 불쌍한 옛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대답했던 것으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사실 작은 자갈과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는 나타나셨다. 도마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500 여 형제들에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다시 사신 것을 나타내셨다 (고전 15:6).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야고보는 예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글썸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바울은 그가 다마스쿠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Biblical Recorder, January 13, 2005.

[http://www.baptiststandard.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099&Itemid=133](http://www.baptiststandard.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099&Itemid=133). Accessed 4/20/11.

목격했을 때 확신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그를 배교자 (apostate)에서 사도로 (apostle) 바뀌게 했다.

##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15:12-20)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자들을 부활을 확증해준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있던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아왔었다. 그리스 철학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그들의 사고 구조에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나는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약간 동정이 간다. 나는 수 백번의 장례식을 집행해 왔고 아직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 우리의 경험에서 부활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반대로 논쟁을 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부활의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틀렸다는 증거이다 -- 즉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거부한다면, 전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 없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전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들의 믿음이 헛되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고 헛된 구세주에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거짓 구세주를 경배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들은 예수께 그들의 삶을 바친 것으로 인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의 논쟁에서 내포하는 바는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 그것을 믿었고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만일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면 복음은 사실이다. 만일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계신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도 그것을 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고 비록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열매이지만 예수께서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 영적인 몸들 (15:35-44)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과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죽은지 오래 되어서 흙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화장된 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육체적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지만 바울은 부활한 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준다. 그는 영적인 몸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다.

영적인 몸은 육체적 몸과 다르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몸에 대해서 익숙하다. 바울은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서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새와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은 다른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태양, 달, 그리고 별과 같은 천체들을 보고 이러한 몸들은 동물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바울은 이러한 몸들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를 분석하는 과학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다양한 피조물들이 다양한 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몸은 다른 몸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인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바울은 그 개념을 씨에 비유했다. 씨는 땅에 뿌려질 때와 그것이 싹이 터서 자란 식물일 때의 몸이 각각 다르다. 그 식물은 땅에 뿌려져서 식물이 된 씨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식물은 그 형태에 있어서 씨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영적인 몸은 6피트 땅 속에 묻혀진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겠지만, 비교도 안 되는 그 이상의 몸이다.

두 마리의 나비 애벌레가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수 백만 년이 지나도 나를 저런 몸으로 일으킬 수 없을거야." 글썄, 그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진실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고 무덤에 갇혀있는 이 오래된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실 수 있다.

##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15:50-57)

영적인 몸은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다. 영적인 몸은 이 세상의 물질에 제한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 질병에 걸리거나 죽지도 않을 것이다. 불멸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15:53).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15:50).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것처럼 영적인 몸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살아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 세상의 죽음을 맛 보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며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지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누른다는 것을 안다. 바울이 이사야와 호세야를 인용해서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놀랍지 않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54-55). 그리스도는 부활해 살아계시며 주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뒤이어 일어날 첫 열매이시다.

## 적용 및 실천

얼마 전에 나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I-35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텍사스의 에디 마을 근처까지 왔었다. 나의 아버지는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있다. 나는 잠깐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묘지 뒤로 운전을 해서 자갈이 깔려있는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나는 죽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다. 나의 왼쪽에는 1930년대에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1950년대에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가 묻혀있다. 나의 오른쪽에는 몇 명의 사촌들이 묻혀있다.

그들은 죽은지 오래 되었다. 하지만 내 앞에는 나의 아버지 무덤이 있었다. 나는 거기에 몇 분동안 그 무덤을 바라보며,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몇 분동안 서있었다. 하지만 5분 정도 뒤에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결국, 땅 속 6피트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차를 다시 타고 여행을 계속했다.

나는 차를 타고 나가면서 이동용 의자 위에 앉아 한 무덤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노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무덤은 이제 갓 만들어진 무덤이었다.

나는 이야기 전체 내용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의 60 여살, 혹은 70 여살 된 아내가 죽은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노인은 그렇게 밖에서 몇 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 장례식이 끝난 이후 쪽 그렇게 있었을까? 그렇게 그는 무덤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지? 저렇게 쳐다보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을 모르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는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 질문

1. 당신이 죽은자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커다란 지적인 방해물이었는가?
2. 당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가?
3.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죽은채로 남아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4.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 [참고]

### 죽은 자에게 설교

한 친구가 종종 텍사스 침례교 대학교들 중의 한 곳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곤 한다. 설교의 연습으로 그는 때로 반원들을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그 반의 한 학생이라면 당신은 죽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하겠는가?<sup>12)</sup>

---

12) Duane Brooks, *This Magnificent Salvation* (Dallas, TX: BaptistWay Press, 2010), 77.

## 고린도후서: 관계를 새롭게

바울은 대략 고린도 교회를 떠난지 3년여가 흐른 제 3차 전도 여행(A.D.S3-57) 중의 A.D.S5년경 에베소(Ephesus)에서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기 위하여 첫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발송 직후 고린도교회의 상황이 급작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본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방문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달리 고린도 교회를 친히 방문하였었다. 그러나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였어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회개를 보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귀환한 후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현재는 전승되지 않은 사도서신을 고린도교회에 발송했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달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의하여 극히 일부의 성도가 이제는 아예 바울의 사도권 및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일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여 결국 복음의 요청에 수렴되는 회개를 일관되게 촉구하는 자신의 교훈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은 고린도전서와 상호 직접적으로 연속된 것이다.

고린도후서는 거짓 사도들의 기만에 호도된 일부 고린도 교우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도권 자체를 불신하는 불의의 상황에 직면하여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여러 측면에서 변호한 사실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바울의 변론 내용 전반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다음의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소명(覆命)에 대한 확고한 인식(認識)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인식과 소신은 각자 자신의 소명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확고한 인식의 산 모범이다. 무릇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대 원칙하에서 각각 구체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먼저 성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성도도는 자신의 소명에 절대 헌신(離身)하여야 한다. 본서 곳곳에 직·간접으로 거듭 언급되듯이 극심한 역경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직에의 헌신은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각성케 해주는 산 모범이다. 성도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천국 영생이라는 절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 나아가 이제 각자 천국에서 더 큰 명예와 상급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명에 절대 헌신하여야 한다.

셋째로, 각 성도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서에 나타나듯이 심지어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며 양육하던 초대



교회 시대에도 교회에 불신과 분열이 있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자는 분명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천국 구원을 이미 획득한 자들이지만 아직 그 인격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닌 바 이런 자들의 지상 공동체인 교회에는 불신과 분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성도는 본서에 나타난 바 불신을 당한 바울의 문제 해결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절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말고 죄인을 향하여 무궁히 참으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인내(忍耐)하고 관용(寬容)하며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상호간의 바른 이해(理解)를 도모하여 문제의 평화롭고도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로, 성도는 구제(救濟)에 힘써야 한다. 구제는 먼저는 그 구제를 받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실증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동시에 구제는 이를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것 모두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바쳐서 순 복한다는 사실을 자타에게 입증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을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이다.

다섯째로, 각 지교회(支教會)와 지교회 사이에도 긴밀한 친교(Koinonia)가 있어야 한다. 각 지교회는 그 지역과 시대의 구체적 유형교회이다. 이러한 각 지교회는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이다.

여섯째로,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자(the Optimist)이어야 한다. 본서에서 바울은 본론을 통하여 고린도 일부 교우들이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내내 그토록 준엄한 어조로 일관하며 자신의 사도권 확립을 시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린도 교우들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를 축복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심지어는 성도 개개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구원이 주어질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종말 이후에 도래할 천국 구원의 확신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 고린도 후서 연구를 위한 자료들<sup>13)</sup>

Paul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G.R. Beasley-Murray. "2 Corinthian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ume 11.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1.

Ernest Best. Second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7.

F.F. Bruce. 1 and 2 Corinthians.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1971.

Kenneth L. Chafin. 1, 2 Corinthians.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5.

David E. Garland. 2 Corinth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and Holman, 1999.

Brian Harbour. 2 Corinthians: Commissioned to Serve. Nashville, Tennessee: Convention Press, 1989.

Craig S. Keener. 1 and 2 Corinthians.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John B. Polhill. Paul and His Letter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9.

A.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ume IV.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31.

J. Paul Sampley. "The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XI.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

13) 연구자료 목록에 있는 내용을 모두 BAPTISTWAY PRESS의 신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b>[제 7 과]</b></p>	<p><b>당신의 어려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b></p>
<p><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1:1-11</p> <p><b>배경</b> 고린도후서 1:1-11</p>	<p><b>학습주제</b>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중에 넣고 계실까?</p> <p><b>학습목표</b>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에 대한 바울의 접근방식을 묘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한다.</p>

## 들어가기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가 경험했었던 평안을 그들에게 나누었다.

와싱턴 D.C.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출신이다. 이 아프리카인들은 놀랍다. 그들의 이전의 삶은 고통스럽고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북미에 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힘든 삶을 살았다.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자녀들이 종족과의 전쟁에서 칼로 무참히 베어 죽은 이야기를 말한다. 어떤 이야기들은 질병, 특히 AIDS 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망명을 해서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을 전체에 걸친 살육으로 인해 수 많은 시신들이 한 구덩이에 묻힌 이야기를 말한다.

이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알지만 만족한 삶을 산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다. 그들은 깊은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사랑하고 섬긴다. 그들은 평화가 내재된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들로 교란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고후 1:7) 따라서 살았던 사도 바울과 완전히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들은 삶의 역경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1:1-2)

바울은 그의 전형적인 인사말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다. 그는 그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쓰고 있었다. 디모데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때문에 이 서신의 최초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신을 가리키는 "사도"라는 호칭은 남겨놓는다. 이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적 중의 하나인 지위와 권위에 대한 글을 암시한다.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아가야 주에 있는 다른 성도와 연계함으로써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진실로 우리는 때때로 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

##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1:3-5)

진실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그 평안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홀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린도후서의 주요 골격을 내려놓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신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더 깊고 강한 믿음으로 가는 통로로써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바울이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라 --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

## 내일을 향한 밝은 소망 (1:6-7)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위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를 줄 때, 우리는 이번 과가 우리 자신이 고난을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보았고, 겪어 보았고,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느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죄, 혹은 잘못된 결정이나 불운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추측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의 결과로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며 더 큰 동정을 느끼며 자신의 고통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바울은 자신과 그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고난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이 관계를 강력한 것으로 보았다. 아마도 그는 전도서 4:9-10절의 지혜를 빌려오고 있는 듯 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그들을 향하여 큰 동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 맞았으나 부서지지 않았다 (1:8-1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 질 때, 격려를 가져다 준다는 주제를 이어갔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1:8에서 그의 고난의 위험을 묘사할 때 강렬한 언어를 사용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4) 동정의 뜻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다.

바울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그것은 야생 짐승의 공격이었을 수도 있다 (고전 15:32). 분명한 것은 비록 그가 거의 죽었다고 느꼈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를 구해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가 간증할 내용들을 제공해주셨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후 4:8).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으로부터 놀라울정도의 탈출구를 주신 힘의 근원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했다.

마치 그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계속하실 것이라는 신뢰까지 포함된다. 바울은 그의 소망을 이렇게 견고한 기초에 두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살아있었고, 그런 믿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바울과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기쁨과 승리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 적용 및 실천

역경은 헌신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값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헌신으로 인해 많은 고난들을 겪어야 했다. 그가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르기를 원했었다면 많은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어디든 가서 헌신하는 것이 때로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헌신의 패키지 속에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바울의 간증은 실언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간증은 또한 우리에게도 좋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도와준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고난의 한 목적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동일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우리는 고난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동정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난을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뻐할 때도 함께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믿었다.

## 질문

1.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받은 고난을 알기를 원했는가?
2. 당신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으킨다고 믿는가, 아니면 고난을 허용한다고 믿는가?
3. 바울이 이 구절에서 경험했던 것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가?
4. 당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고난이나 역경의 시기를 묵상해보라. 당신은 그 결과 어떤 좋은 변화가 있었나?
5. 고난이나 역경의 시기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6.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후 1:8)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해 줄 것인가?

## [참고]

### 고난을 돌파하기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된다. 때로 꽉 막힌 관계들이 열리기도 한다. 때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 것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시각을 올바르게 해주는 길이다. 당신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

<b>[제 8 과]</b>	<b>얽힌 관계를 풀어라</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2장 1:12-2:13</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후서 1:12-2:13</p>	<p><b>학습주제</b> 얽힌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직함과 솔직함,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p> <p><b>탐구질문</b>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얽힌 관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p>

## 들어가기

바울은 시종일관 신실함과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의 문제에 대처했다.



나는 얽힌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나는 한 주택 개보수 작업을 위해 친한 친구를 계약자로 고용한 적이 있었다. 8개월간의 공사기간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우리는 일과 우정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몇 명의 하청업자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이성을 잃었고 우리의 대화는 바울이 본 서에 기록한 고통 그 자체였다.

주택 개보수는 계획된 날짜에 끝났고 집은 보기에 아름다웠다. 결국 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는 서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해는 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어쩌면 결코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그 친구를 고용한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또 만약 내가 좀 더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았더라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쨌건 나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바울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 자랑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그토록 대견하게 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적어도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과장되게 대견해 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듯 신실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켰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바울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자랑하고 기뻐했다. 이 경우, 그의 자랑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옳은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세운 기록을 뽐내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대기업들조차도 기업이 환경과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에 한 일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들은 적다. 바울의 하나님자랑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누가복음 19:28-40).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를 진정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다. 예수님은 하박국 선자자의 예언을 이용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40, 하박국 2:11을 보라).

## 변경된 여행일정( 1:15-2:4)

오늘날에도 여행 일정은 갑자기 변경 될 수 있다. 나쁜 날씨나, 비행기의 연착, 자동차의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 일정이나 계획이 변경 된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위의 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르기를 원했지만 고린도인들에게 분노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가지 않았다.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교인들이 그의 여행 일정 변경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바울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이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문의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믿었고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실 것을 간구한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매우 극단적인 행동이었으며 여기서 우리는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르짖는 바울의 음성은 그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 또 다른 고통스런 방문”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는 대신 그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찬 또 다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가 이후에 그곳을 방문할 때에 서로의 고통이 훨씬 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적고 있다. 그는 먼저 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의 자기 방어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방문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고린도교인들에게 바울의 여행 일정변경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비춰졌다. 적어도,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효과를 가져왔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고후1:23) 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할 것을 말씀 하신다.

## 한 개의 썩은 사과(2:5-11)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 번 고린도 여행에서 자신을 욕하고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누구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계모와 장자리를 함께 함으로 비난을 받은 남자라고 잘못된 추측을 하기도 했다( 고전 5:1-8). 비록 그의 비난의 대상이 바울 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말한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 편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징계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다. “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바울은 화해를 전제로 해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썩은 사과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를 보여주었다(2:8)

바울은 용서가 사탄의 궤계를 막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고린도 교회와 함께 용서의 대열에 동참했다. 바울은 사탄이 교회의 사역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 사탄이 조장한 분열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죄에 대한 화해와 용서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의 신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한다.

## 드로아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2:12-13)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 또한 고린도에 있었다. 어쩌면 그 고통으로 가득 찼던 편지를 고린도교인들에게 전한 사람이 디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바울로부터 고린도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는 부탁을 들었을 것이고 마게도니아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기로 했을 것이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에 머무르고 있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디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마게도냐로 향했다. 그 상황은 바울이 드로아에 남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힘든 것이었다. 드로아에서 그는 걱정이 되어 잠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강한 필요를 느꼈고 자신의 짐을 덜어줄 답변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답은 오지 않았고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본문의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의 다른 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끝없는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영적인 유전자(DNA)였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는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순전히 고린도교회에 대한 그의 염려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쳐놓고 그곳을 떠난 것이 과연 잘 한 일일까?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일어난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음을 볼 수 있다. 사소한 갈등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 적용 및 실천

어떤 관계에서나 갈등과 혼란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에게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가정, 학교, 교회,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바울처럼 자신의 위치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유연한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이 훈계이건 도움이건 또는 심지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바울의 갈등은 그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던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 보여준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바울의 갈등은 또한,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동시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당신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지 점검해 보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당신은 교회의 사역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또는 당신과 교회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는가?

엷힌 관계를 잘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다. 바울에게서 배우라. 엷힌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질 때까지 결코 내버려 두지 말라.

## 질문

1. 왜 바울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는가?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 할 때는 언제인가?
2.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고후 1:20)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은 얼마나 틀림없는 진리인가?
3. 바울은 더 이상 혼란을 피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해야 할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바울이 자신에게 잘못 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을 당신이 용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미 타인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는가?
5.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더라면 더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옳은 일일까?

## [참고]

### 교회내에서의 갈등

침례교인이라고 해서 갈등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다. 침례교단은 국가와 교회의 갈등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 침례교인들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싸워야 했다. 어떤 갈등은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죄가 개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갈등의 대처하는가? 당신은 문제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과거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도우실 수 있다. 당신은 바울과 고린도교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얽힌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의사소통 법

바울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음이 틀림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한다.

- \*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 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은 직접 대면하지 말고 이메일을 이용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 한다
- \* 직접 대면한다. 의사소통의 기술에는 눈짓과 몸짓도 포함된다.
- \*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은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라. 너무 냉정 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입장과 감정을 전한다.
- \* 소통하라. 너무 감정만을 내세우면 관계를 망치기 쉽다. 바울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라.

<b>[제 9 과]</b>	<b>바른 기준에 의한 사역 평가</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2장 2:17-3:6; 4:1-6</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후서 2:14-4:6</p>	<p><b>학습주제</b> 기독교의 사역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p> <p><b>탐구질문</b> 교회의 사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p> <p><b>학습목표</b>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평가했는지를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런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p>

## 들어가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고린도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단순한 한 마디의 선포 때문이었다.

때때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 신실한 사역자는 적고 사기꾼들만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는 약장사 같은 사람들은 물을 흐려놓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오늘날 교회에도 놀랄 만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털을 쓴 늑대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던 때부터 슬그머니 교회내로 들어왔다. 이런 사기꾼들과 배만 부른 사역자들의 존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 놓았다. 비록 그의 적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바울은 사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사역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사람들( 2:17-3:6)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록을 토대로 우리는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면모를 재구성 해 볼 수 있다. 먼저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자. 첫째,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관점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하려고(고후 3:1-4:5) 스스로를 팔고, 칭송하며 심지어는 “추천서”를 가져오기도 했다(고린도후서 3:1). 두 번째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을 가르치고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다(3:3, 6:9). 마지막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은 달변가들이었고, 그들은 바울이 겉보기에는 유창한 말재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했다(10:10; 11:5-6)

핵심 본문의 서두에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기꾼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르는 사역자들로써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다. 본 과의 핵심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사역을 점검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행동하기(2:17);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람들을 섬기기(3:1-3);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3:5); 새 언약의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기(3:6); 정직하고,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기(4:1-2);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4:5)라고 선포하기;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4:5).

2절과 3절은 위에서 말한 바울 사역의 기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진심어린 관심이다.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라고 말하고 이 편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라고 말했다. 바울은 3절에서 또 다시 고린도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개역한글 성경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개역 개정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그리고 새번역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고 번역했다.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봄으로써 바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 때문에 세워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였던 것이다. 바울은 단순히 설교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성도들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바울 사역의 기준은 그 사역의 열매였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지식이 있고 읽을 줄 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 숨쉬는 편지는 “먹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여진” 것이었다(3:3). 성도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의 언행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바뀌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된 삶이야말로 바로 생생한 간증이 된다.

3절은 성령과 돌비에 쓰여진 편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6절로 연결되며 3:7-18절에 나오는 새로운 언약을 따르는 바울의 사역과 옛 언약을 따르는 그의 반대세력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바울은 옛 언약보다 위에 있는 새 언약의 우월함을 강조함에 있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울은 성령의 직분이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한다(3:7-11). 그는 또한 옛 언약은 가려져 있지만 새 언약 안에서 가렸던 너울이 벗겨진다고 말한다(3:14-16). 너울로 가린 것과 너울을 벗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너울에 가려진 옛 언약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이 완고해 졌다”는 것(3:14)과 “그 너울이 그들의 마음도 가렸다”(3:15)는 것이다. 반면, “너울이 벗겨질 때에” 새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 진다(3:16).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3:18) 하게된다. 다시말하면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열매들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다. 바울의 사역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변화였다.

## 평범하고 정직한 사역( 4:1-6)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문화속에서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빌립보서 2:14-15)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며 살았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반대할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이나 “기만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게 누구든지 그들의 사역이 이기적인 사역이라고 참소 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단순히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예수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했을 뿐이고 주님을 위하여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후 4:5). 바울에게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이 빛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4:6)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오늘날 우리의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은 그의 사역에 소명과 열정을 불러일으킨 놀라운 체험이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능력으로 여겨진다. 바울은 강했지만 우리 자신은 그해 비하면 약해 보인다.

하지만,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생각한 만큼 크지 않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독특하고 훌륭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 또한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한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은 것이다(1:22).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드러난 진리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4:2)

현대 문명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낀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놀랍게도 자기들이 가진 것만을 자랑한다. 예를 들면 뻥뻥한 행사 일정, 달력에 적힌 또 다른 행사들, 구제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나 또는 새로운 교육관 건축 계획등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역을 행사중심으로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행사를 통해 교회의 빈 자리가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이 몰려 들게되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교회예산이 다 채워지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인가?

필자는 바울이라면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이 무언가 결정적인 사역의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실적이 없는 최고 경영자가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스포츠 팀은 주임 코치를 내보내기도 한다. 만약 교회가 같은 이유로 사역자를 해고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는 교회를 선호한다. 하지만 교회가 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 적용 및 실천

최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청소년부 사역자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힘들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게임, 홍보, 행사)을 많이 시도했다. 우리는 교회사역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일상은 이미 많은 “행사”들로 가득차 있다. 달력에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헌금을 기대한다. 그들은 헌금이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부족할까봐 염려한다. 하지만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써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머거리에게도 들린다는 것이다. 말씀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 질문

1. 당신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2. 당신 교회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3. 당신은 교회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 학습용 공과에 있는 “ 평범하고 정직한 사역”의 내용을 읽어 본 당신의 첫 느낌은 어땠는가? 필자의 생각에 동의 하는가? 왜 동의하고 또 왜 동의하지 않는가?

## [참고]

###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우리”

고린도후서가 비록 바울이 쓴 편지이기는 한지만 그는 자신이 사역의 한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그 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1인칭 복수대명사를 사용한것은 “ 바울이 자신은 개성강한 사도가 아니며 그의 편지들이

교회의 의견과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이 사용한 “우리”라는 단어에는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 사례연구

한 친구가 당신에게 실망감을 토로한다.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가 동료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할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b>[제 10 과]</b>	<b>영원한 안목으로 보는 삶</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4: 7-5:10</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후서 4:7-5:10</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포함한, 삶에 닥쳐오는 모든 도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승리하는 삶을 살기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p>

## 들어가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리한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서부 텍사스의 야생에는 방울뱀도 많고 코요테나 야생돼지들이 마치 제 영역을 알리는 것처럼 으르렁 거린다. 동물의 왕국에서 각자의 영역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 사냥꾼도 사냥감 만큼이나 많다.

쥐는 우리 집 근처에 버려진 고양이를 두려워 하지만 고양이는 매일 밤 곳곳에 숨어있는 코요테나 야생 고양이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 고양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고양이가 언제나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놈은 언제나 우리 승합차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높은 나뭇가지 위 등 주로 위쪽에서 지낸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눈은 우리 집 지붕위에서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놈의 눈과 마주쳤다. 몇몇 운 없는 포식자들과는 달리, 이 고양이는 뭘 제대로 알고 있다. 바로 제가 살 수 있는 희망은 위에 있다는 것이다. 참 영리한 생존 방법이다.

## 죽는 일( 4:7-15)

고린도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바울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적절한 은유법을 사용해 자신을 “질그릇”(고후4:7)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마른 진흙은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그릇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함에 무쇠로 만든 그릇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이다( 고후 4:8-9)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은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설명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4:5-6).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느라 바빴던 동시에, 그는 늘 고통과 죽음의 위협가운데에 놓여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놀랍지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마다 수반되는 많은 “위험과 덧”을 조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 3일후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바울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두고 한 말씀 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자기도 다시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전에 직면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4:13, 14). 성도들이 눈을 들어 이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떤 도전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4:16-18)

바울은 4장을 서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끝맺고 있다( 4:1을 보라) 그는 1절에서 사용했던“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16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비록 그는 인간의 눈에는 인생의 고난가운데서 쇠약하고 지쳐 보였을지 몰라도( 11: 24-28을 보라), “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다(4:16)

성도의 삶은 내부가 다 개조된 집과 같다. 그 집은 외관상으로는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허름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낡은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친절과 온유로 덧입혀진 새로운 집이 되는 것이다. 피폐한 정신이 그리스도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새롭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몸은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탄식을 벗어버리고 성령충만의 탄성을 지르게 된다.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질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세월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병과 노화속에 언젠가는 “ 이 땅의 장막”(5:1)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이지않는 것이 영원하기”(4:18) 때문이다.

## 부활의 역사( 5:1-10)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지만 성도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 확실한 사실이다.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을 때에, 사도 바울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첫째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다(5:1).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영원” 하다는 것이다( 5:1).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것이라는 것이다(5:8).

처음의 두 가지는 부활한 몸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몸( 임시적인 장막)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바뀌어지며,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다(5:1). 부활이 일어나면 이후에는 고통도, 노화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릴 옛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21:4)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필체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집”( 고후 5:2)을 덧입혀 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 시기 때문에 “우리가 벗은 몸” 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3). 그는 아름답고도 적절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셔서 그들이 벌거벗지 않도록 해주신 사건을 찾아 볼 수 있다(창세기 3:10,21).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호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는가?

본문은 바울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 강조한 또 다른 부분과 연결된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후5:8). 비록 사후의 세계는 신비함과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빌립보서 1:21-24), 성도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고 고백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별한 선언에 대해 성도가 가진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이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맹세할 때, 그것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저축이나 맹세는 모두 다 심각하게 결정하는 사안이다.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정액을 입금할 의도를 가지고 한다. 성령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증해 주신 것이다”( 5:4).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 언제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후5:6,8).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생의 삶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아주 짧은 전주곡일 뿐이다.

그러나 현생의 삶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사이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과 10절은 강렬하고도 범상치 않은 표현으로 끝난다. 이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 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다는 것일까?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잘 생각해 보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3:20). 또한 구원은 죄를 지을 자유를 부여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고후 6:1-2). 그러나 여기서 행위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과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4:16)의 결과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우리의 삶과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야고보서 2:14-18). 그러므로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본다. 당신의 집 수도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배관공을 불렀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을 것인가? 배관공이 자기 차에 타고 멀리 떠난 후인가? 그는 부품을 사려고 시내로 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스패너를 잊어버리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수도가 고쳐졌는지는 수리를 마친 뒤 바로 물을 틀어보면 알 수 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심판대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 1서 3:15-21). 예수님께서도 “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마태복음 12:33) 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종종 우리자신을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오래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고칠 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이 땅의 삶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적들이 많이 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베드로전서 5:8). 어두움의 권세잡은 영외에도 또 다른 적들이 있다. 의심과 불안은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죽음의 소식들을 접한다. 염려와 의심과 불안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써야 한다.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절망적인 시도가 아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당신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명심하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 질문

1. 당신을 낙심시키는 것이 있는가? 본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울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2.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다(고후 4:13-14). 당신에게 있어서 지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3.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4. 당신의 영적인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깨끗한가?

## [참고]

### 침례교 선교사

1700년대에 거짓말과 저주를 잘 하는 어떤 제화공(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다가 체포되었다. 얼마가 지난 후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게 되었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이 청년은 제화공에서 설교가, 선교사, 언어학자, 그리고 교수가 되었다. 평생동안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40여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인도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는 두 명의 아내와 한 자녀를 잃었다. 그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했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때도 많이 있었다. 외로움도 겪었고 깊은 절망가운데 빠지기도 했으며 가난에 허덕이기도 했다. 그가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이다.

## 삶에 적용하기

- \*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 \*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다음의 질문을 계속 하는 습관을 들여라.  
도대체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
-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 \* 당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것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b>[ 제 11과 ]</b>	<b>사역의 동기</b>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5: 11-6:2</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고린도후서 5:11-6:2</p>	<p><b>학습주제</b>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이 사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p>

## 들어가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기가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한 때 각자의 책상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진을 놓고 일하는 사람 두 명과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가 꿈꾸는 물건인 작은 보트의 그림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의 사진을 항상 보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보트를 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싫든 좋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일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첫 번째 사람은 가족도 보트도 다 가졌던 반면, 두 번째 사람은 가족과 보트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다.

동기는 어떤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동기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것이다.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기는 우리의 삶의 의미, 가정, 직업,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주님은 유급 사역자가 아닌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5:11-13)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표현은 종종 잘 못 쓰여지거나 오해의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닌 진노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한다.

두려움( 그리스어로 phobos)은 종종 경외, 존경, 또는 놀라움, 경탄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비록 많은 의미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두려움의 성경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놀람, 두려움, 또는 경중(을 울리다) 등이다. “주님께 대한 두려움”은 두가지 의미의 결합으로 이해되어 져야 한다. (1) 주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 (2) 세상을 심판하시는 놀랍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두 가지이다. 고린도후서 5:11은 후자의 의미, 즉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로마서 14:12)

비록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심판받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사역은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건초, 지푸라기등을 모으는 일이 아님을 말한다. 우리의 사역은 불로 단련되어 점검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10-15).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야 하지만 그 분은 또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다는 “중심”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고후 5:12).

## 그리스도의 사랑( 5:14-15)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능가하는 가장 큰 동기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역의 중요한 한 단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관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5:10). 사랑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5:14). 그 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표현이다. 로마서 5:6절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고 말한다. 로마서 5:8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16과 로마서 10:9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그를 영접할 때에만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는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였다. 우리는 또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 분을 위해 산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이에 대해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한 1서 3:16)고 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안다”(요한1서 4:7)고 했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 피조물( 5:16-21)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사역의 세 번째 동기이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경건치않은 사람들” 즉,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다(고후 5:18). 이 화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5:17의 말씀처럼 “옛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않고(5:16),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연약한 인간성은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품고 사랑해야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바로 평화의 사자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18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해 준다. 성경적인 의미의 화해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다.

성경은 공동체와, 교제,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교제는 끝났으며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도간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8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이 사역을 적용하는 세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고의였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무마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거절 당할 때도 있지만 개의치않고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죄과를 따지지않고” 인간을 용서하시는 (5:19) 하나님처럼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그 분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 받았다( 5:18).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미국대사는 중국에 살면서 미국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는 중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시민이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 하시고,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이다. 대사로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대표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해의 말씀을 전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임박한 때( 6:1-2)

사역의 마지막 동기는 바로 임박한 시간 때문이다. “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2).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다. “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거나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시간에,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시간은 짧고 빨리 지나간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요, 다른 사람들과 화해 할 때이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평케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6:1)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6:1)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들이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자.

## 적용 및 실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당신의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두려움, 사랑, 새롭게 변화된 삶, 임박한 주님의 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주변의 필요에 대해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 질문

1. 로마서 14:12; 고린도전서 3:10-15; 고린도후서 5:10을 참고해 볼 때, 당신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2. 당신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회복되었는가?
3. 어떻게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평화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4.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5.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시급성을 당신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 [참고]

고린도후서 5: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안에, 그리고 주안에 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 할 수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은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었다. 이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구절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안에서 연합한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공동체로 묘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서로 나눠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함을 나타내준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역하기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 실직한 가족 중 한 사람이나 친구를 위해
- \* 심각한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
- \*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부를 위해
- \*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 \* 많은 업무로 힘들어 하는 사역자를 위해
- \* 분열된 지역사회를 위해( 사무실, 교회, 가정, 학교)

<p><b>[제12과]</b></p>	<p><b>주는 것에 부요한 자가 되라</b></p>
<p><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8:1-15; 9:7-8;11-15</p> <p><b>배경</b> 고린도후서8-9</p>	<p><b>학습주제</b> 주님의 사업에 재정적인 자원을 후하게 드리도록 결정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들</p> <p><b>탐구질문</b> 당신의 재정적인 드림이 신약의 가르침과 얼마나 닮았는가?</p> <p><b>학습목표</b> 재정적인 드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주님의 사업에 아낌없이 드리도록 한다.</p>

## 들어가기

바울은 주님의 일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낌없이 드리는 가르침과 모델들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은 과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 드림은 은혜로운 행함이다(8:1-9)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복음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하나하나의 선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드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드림은 대단한 특권이다.

바울은 두 가지의 드림을 보여 주었다: 마게도냐의 모델(고린도후서 8:17)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모델(고린도후서 8:8-9).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안에 있는 교회들이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드렸다(8:2). 다른 곳에 나타나는 이 교회들에 대한 단어들은 극심한 고통, 그리고 박해 였다(빌립보서 1:29-30; 데살로니가 전서 1:6; 2:14; 3:3-4). 많은 때에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도전이 될 때에 뒤로 물러나기가 일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들의 필요가 있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외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깨eke게 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과 같이 심한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요즘같이 재정적인 압박과 도전들이 많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나 우리들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도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물질들을 나누어 주었다. 바울은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드렸다고 말한다(고린도후서 8:2). 우리는 우리가 왜 나누어 줄 수 없는가 핑계들을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은혜로 우리들을 위하여 사치스럽고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것들을 나열할 수가 있다. 마게도냐인은 풍부한 중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대신 “힘에 지나도록” 나누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가지는 넘치는 그들의 “기쁨” 이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된 기쁨이 없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를 닮으라고 부르셨다. 우리들이 주는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정신이 요구하는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는 나눔의 은혜 안에 있는 기쁨을 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원하여 나누어 주었다. “모든 것을 그들의 힘대로”(8:3-4). 그들은 또한 나누어 주는 ‘특권’을 소원했다(특권은 헬라어의 은혜에서 나온 뿌리).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있는 부유한 교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후하게 나누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 가난하고 핍박을 받은 마게도냐 교회가 나누어 줄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는 삶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핑계를 대지 않고 드렸다. 드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었다(8:5). 지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마게도나 교회들이 한 것처럼 이런 은혜의 행동을 완성하라고 부탁한다. 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라고 하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

고린도인들에게 여러 은사들이 넘치었지만 나누어 주는 일에는 부족했다. 크리스천들은 한쪽 방면에 뛰어나다면 다른 방면에서는 부족해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다른 방면에는 믿음으로 뛰어나다면 나누는 은혜에도 넘치도록 하자.

두 번째 드림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이다(8:8-9).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부요하셨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은 어떻게 은혜롭게 행동하는가를 보여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반대로 우리도 세상의 것들에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 나눔에 충성하라(8:10-15)

전에 이미 언급했지만 나눔에 충성하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의 완성이다. 고린도 교회는 나누려는 원함이 먼저 있었지만 나눔을 먼저 이루지는 못했다(8:10-11). 사실 그들은 그들의 헌신을 아직도 마치지를 못했다. 주님께 드리려는 열망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지 않으셔서 이루지 못한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은가? 당신이 교회와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역들이 완성되지 않은 헌신 때문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드림은 마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지갑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리지만 그들의 서비스가 많은 양을 드린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드린다(8:11-12). 바울이 마게도나 사람들이 얼마를 드렸는가를 보지 않고, 그들의 가난함 중에 드린 것을 보았다. 물질의 풍요가 드림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진정한 원함이다. 오늘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의 빛과 꼭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의 높은 수입은 하나님께 많은 드림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느냐로 정해진다.

성경적인 드림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대등하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한다(8:14). 우리는 모두 커뮤니티의 부분이다. 우리는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마태복음 25:31-46).

## 올바른 태도로 드리기(9:7-8,11-15)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드릴 수도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이 구절 속에서 얼마의 금액을 드렸는지 언급이 되지 않고, 선물 뒤에 감춰진 동기가 중요함을 보라. 바울은 드리는 자가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들을 나열했다(이것들이 잘못된 것에 전부가 아니지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다(고후9:7)**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배우는 것은 처음 드리는 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우리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지못해 드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독자인 예수님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자(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드리지 말고, 은혜의 행위로 드리자. 우리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요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이다.

바울은 의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세 가지 태도들을 주었다: 기꺼이, 후하게, 감사하게 드리는 태도이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에 반하여, 크리스천들의 드림은 기꺼이 해야 한다(9:7).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기 때문이다.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들과, 힘과,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드릴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드림은 주저할 것이요, 마지못해 할 것이요, 무미건조하게 할 것이요, 후회를 할 것이다. 당신은 열심히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즐거이 내는 것은 이 과에서 두 번째 드리는 태도이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는 하나님의 후하심이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한다. 바울은 후하심에 대하여 9장에서 6번이나 언급했다(9:5,6,11,13). 후함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후함의 유익들이 있다. 주는 자만이 아니라 받는 자도 축복을 받는다. 잠언 11:25절에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운택하게 하는 자는 운택하여지리라.” 잠언 22:9 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풍성과 축복과 회복된 영혼은 후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온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감사함이다. 고린도후서 9장11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는 드림의 한 부분이다. 주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음을 인식해야하며,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일부분을 돌려 드림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한다.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게 된다. 핵심은 드림은 하나님에게 두 배의 찬송을 돌리게 한다. 그 행위 자체가 감사의 찬송이요, 그 결과는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오게 한다. 많은 문화에서는 감사하는 시간과 날들을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따로 정한다.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선물”(예수님)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는가?

## 적용 및 실천

성경은 우리는 드러야 하며, 바른 자세로 드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실하게 드리는 것에 갈등하고 있다.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정에서 주님을 빼는 삶의 스타일에 집중이 되어있다. 우리는 재정적인 헌신을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십일조에 대한 헌신을 먼저 해야 한다.

## 질문

1. 어떻게 은혜의 행위로서 드릴 수가 있을까?
2. 당신은 주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한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아니한가?
3. 당신이 좀 더 규칙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려면 당신의 재정을 고쳐야 할 부분이나 수입을 쓰는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4. 당신이 성실하게 드린다면 바른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기꺼이, 아낌없이, 감사하게 드리고 있는가?
5.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돈에 대하여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에 헌신하겠는가? 이런 일을 계속 하겠는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용의가 있는가?

## [참고]

### 성경 어디에 십일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십일조 의 단어는 십분의 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처음 십일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하나님의 대사).

야곱도(창28:22) 이와 같이 십일조를 드렸는데, 그는 주님께 직접 드렸다. 십일조에 대한 명령도 민수기 18:20-32와 신명기 14:22-29절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과 레위인들을(제사장) 부양하기 위해서 구별을 했다. 그들은 또한 3년마다 별도의 십일조를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드렸다.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자비와 함께 신실한 십일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3:23, 누가복음 11:42).

## 원하지 않는 십일조

우리에게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선물을 거절한 권한이 있으시다. 아모스 4,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서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일으키는 불의와 불의를 방관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그들이 얼마를 속인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선물이 가치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p><b>[제13과]</b></p>	<p><b>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b></p>
<p><b>핵심본문</b> 고린도후서 12:1-10;</p> <p><b>배경</b> 고린도후서 10:1-13:13</p>	<p><b>학습주제</b>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p> <p><b>탐구질문</b> 우리의 성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의미를 정의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경험을 확인하라</p>

## 들어가기

바울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다루었는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다루는지 도움을 준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4장은 놀이열차를 타는 듯이 읽는 것 같다. 바울은 보통 사역의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기록했고, 자신 개인의 인생 속에서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기록했다. 그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다. 결말에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10장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사도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 바울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그들을 ‘슈퍼 사도’라고 불렀다(고후11:5; 12:11). 바울은 자신이 없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과 얼굴로 대할 때에는 소심하고, 멀리 있을 때에는 담대하다는 고소에 대해서 방어했다(고후10:1,10:10,13:10). 바울은 개인의 은혜와 겸손의 영향과 그의 권위의 균형을 잡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고린도인들의 영적인 부모의 권리와(12:14)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넘나들었다(12:15). 바울은 그의 사도의 역할을 자랑함으로 그의 사역의 정당함을 강조했다(12:1).

11장에서 바울은 그의 역할과 자신들을 “슈퍼 사도”(11:5)라고 부르는 자들 곧 “거짓 사도들”(11:13)과 대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임명장을 자신들을 높이는데 사용했고, 고린도인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 바울은 임명장을 하나님과 고린도인들을 섬기려고 사용했다.

바울에 대한 고소는 바울이 미련하게 일을 다루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라는 고소였다. 바울은 자신을 다섯 번이나 미련한 자라고 불렸지만(11:1,16, 21; 12:6, 11), 이 말을 주님 안에서 자랑함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도까지만 자신을 높였다. 그는 자신을 섬기기 위한 교만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바른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서 “자랑”과 자기 자신을 “미련한 자” 말을 번갈아 사용했다.

바울은 사도가 되는 특권을 말했지만 고난을 인내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위대한 영적인 비전을 본 것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안에 가시를 허락하셨음도 나누었다. 그의 자신이 놀이열차 같은 것의 끝마침은 그의 연약함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했다.

## 하나님께로 특권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12:1-6)

바울은 주님 앞으로 이끌려간 그의 경험을 나눔으로서 그의 권위를 세우고자 계속 ‘자랑’한다. 그는 자랑의 모습을 줄이고자 3인칭으로 말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4:17절 안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교회의 끌어올림에 나오는 헬라어 하파젠타 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 뜻은 붙잡다 또는 뉘아 채다 라는 의미이다. 강조는 붙잡힘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뉘아채는 분에게 있다: 즉,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어하면서 그가 받았던 특별한 비전들과 계시들을 말하고 있다. 그는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고소들을 무효화 시키면서도 여전히 겸손한 영 안에 머물렀다. 그가 말하기를 “셋째 하늘에 이끌려,”(고후 12:2) “낙원”(고후 12:4)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세 가지 가능한 의미들을 고려해 보라: (1) 그들은 하나로 동일하며, 바울을 자신을 반복하고 있다. (2)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간에, 다른 두 가지 사건들이다. (3) 그들은 두 층에서 일어난 일들을 포함한 한 가지 사건이다(망원경같이). 많은 당시의 유대인 세계에서는 하늘나라는 몇 가지 층으로 되어있다고 생각 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층으로 끌어 올림을 받았다고 추정을 했다.

바울이 하늘에 한 번이나 두 번 끌려 올라간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에 넘치는 자였지만 그는 이런 특권을 상급이나 남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역사로 여겼다. 그는 그것을 과시하거나 다 설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는 겸손을 나타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비전들과 계시들과 하늘나라는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도 많은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라.

##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12:7-8)

바울은 “자랑”과 “겸손을 보이는 것”에 교차하고 있다. 그는 사도의 증명을 세우는데 조심스러워 하면서 그의 겸손을 보여 주었다.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하늘에 끌어 올라가는 영적인 활동들을 말하면서도 그는 즉시 “육체에 가시”가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

바울은 하늘의 경험을 어렵듯이 남겨 놓은 것처럼 그의 ‘가시’에 대해서도 적은 내용만 나누었다. 그것은 아마도 육체적인 이슈 같았다. 바울은 그의 사도의 신분 때문에 인내해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들을 나열했다: 감옥, 매질, 구타, 돌질, 여러 가지 위험들, 배고픔(11:23-28).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고통들은 심한 육체적인 외상들을 남겼다. 그는 부서진 뼈, 찢겨진 근육, 내적인 파상들을 가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은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갈4:13-14).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 6:11은 바울이 나쁜 시력을 가진 것에 힌트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또한 글쓰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구타와 돌질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그의 편지들 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로마서 16:22절을 보라). 그는 사도의 신분의 증거로 한 줄이나 두 줄을 더했다(고린도전서 16:21, 골로세서 4:18, 데살로니가 후서 3:17).

아마도 ‘가시’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바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바울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현대의 크리스천에게 잘못된 믿음에 정착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만을 원하실 뿐 고통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부족으로 생긴 결과라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가시’로 생긴 고통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재난들을 그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에도 불구하고 겪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는 바울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불투명하게 남긴 것은 우리가 겪는 감정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 무엇이든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들을 무엇이든지 바울을 모델로 하나님에게 내어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완전하고 증만한 은혜를 의지하기(12:9-10)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자랑과 겸손을 통해서 그의 갈등을 보여 주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겸손한 영을 유지했다. 지금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은혜의 넘침은 우리로 슬픔을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 은혜는 우리의 약점을 이겨내게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전구의 파워는 밝은 대낮보다 어두움 속에서 더욱 강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파워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 진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로 온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12:10)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파워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다.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의 어려움을 기억하라(11:23-33). 그는 고난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으로 강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고통으로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들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한다. 바울이 로마서 8:28절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같은 나쁜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허락 하신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 적용 및 실천

하나님은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 오는 축복들을 보는 시간이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있는가 하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간들이 있다. 우리가 비전들과 계시들을 감격으로 경험할 때도 있고, 어려움과 모욕 속에서 참아야 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힘을 찾자.

바울이 자신의 약점들 안에서 영광을 돌린 것은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잡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들을 작게 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여 단지 괜찮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바울은 이런 생각의 가면을 벗겼다. 그는 너무도 자유하게 그의 약점들을 인정했다(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가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 질문들

1.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면 당신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드리는가(가짜 겸손이 아닌 것으로)?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권들을 주셨는가? 당신은 그를 섬기는데 충성하는가?
3. 지금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은 어떤 의미인가?
4. 당신이 옮겨 버렸으면 하는 당신의 '가시들'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을 아는가?
5.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당신이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는지 볼 수 있는가?
6.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발견한 능력의 경험들이 있는가?

## [참고]

### 천국 (낙원)

낙원은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빌려 온 말이다. 이것의 뜻은 정원이나 공원이라는 뜻이다.

고린도전.후서,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명령: 학습 공과

이것은 천국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 그곳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다(갈라디아서 1:8). 그 곳은 예수님이 오신 곳이며(에베소서4:9, 로마서 10:6),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며(에베소서 4:10;6:9; 골로새서4:1, 로마서 8:34)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곳이다(빌립보서 3:20; 데살로니가 전서 1:10; 4:16;데살로니가 후서 1:7). 천국은 크리스천들의 영원한 집이다(고린도후서 5:1-2).

천국은 실재이며 우리가 앞으로 갈 곳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곳이다. 이곳은 미래적인 보상의 장소만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6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보증이 있다.

##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들

당신은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인가? 당신은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 \* 재산
- \* 지성(성경의 지식을 포함해서)
- \* 웅변과 가르침의 달변
- \* 교회 안에서의 높은 지위; 리더쉽
- \*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확신
- \* 영적인 분별력
- \* 음악이나 예술의 재능